

제418회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8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의실

의사일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 | | |
|--|---|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 2 |
|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2 |
|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2 |
|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
| 5.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2 |
| 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 2 |
| 7.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 2 |
| 8.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 2 |
| 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
| 10. 현안보고 | 2 |

(09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어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에 대하여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6.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7.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8.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 현안보고

(09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들 중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및 제7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결의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 안건들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 기간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건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도광산 추도식에 관한 현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배경과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된 직후 일본 대표는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수개월에 걸친 한일 간 협상의 결과로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사도광산 등재 결정 후 지난 수개월 간 일본과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개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에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분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분들을 접촉하여 추도식에 참석할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추도식 일자 조기 확정과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참석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필요한 시간과 10월 총선 일정 등으로 인해 추도식 관련 일정과 참석 인사 확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11월 24일 추도식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11월 20일이었고 일본 외무성은 11월 22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인 11월 23일까지도 치열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여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1월 23일 이를 일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하였습니다만 동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분들은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이 있던 날 오전에 이미 추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유족분들과 상의한 결과 유족분들도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추도식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터 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유가족 아홉 분과 우리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일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철희 주일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조치에 관한 경과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히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이태리 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일 측의 추도사 내용 등이 사도광산 등재 시 양측이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것임을 설명하고 일 측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도식 행사가 반쪽 행사로 치러지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국 앞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북 군사 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지정학적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를 위한 협력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윤후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윤후덕 위원 잠깐만 계세요, 거기에.

지금 장관께서 사도광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국민에게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해야 하는 얘기지 이 상임위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마이크를 좀……

○윤후덕 위원 이 상임위에서 해명을 하는 현안보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안보고를 하려면 현안보고 자료라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현안보고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자료라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위원들께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게 줘요. 아무것도 자료를 주지를 않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상 위에 배포돼 있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 알았어요.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예,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관련해서 예고된 외교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만 향후의 한일 관계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문제가 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추도사 전문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회의 시작 직전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이거를 며칠 전부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찌 보면 저희들 능멸하고 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규탄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쿠이나 정무관의 발언이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됩니까?

우리가 일본 측을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도 유분수지 이런 내용조차도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를 못 할 정도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정무관의 발언을 외교부가 감싸고 보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즉각 제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두 번째가요 이 추도사를 포함해서 추도식 관련해서 이게 외교 성과였다라고 하는 외교부장관의 강변이 국정감사 때도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외교적 성과면 누구한테 언제 이 추도식 관련된 사항이 보고가 됐고 추도식을 그러면 열기로 했기

때문에 추도식이 제대로 열린다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우리 정부가 동의해 줘라 이렇게 결정한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즉 외교부장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어차피 결정을 했을 텐데 대통령실에 이게 보고된 일정이 언제였고 보고된 자료가 뭐였고 어떤 회의에서 누가 대면해서 보고를 했는지, 언제 결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보고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단 한 장도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외교 참사지요. 국민들이 정말로 부끄러워 못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주도했다라고 하는 심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께서는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하지만 외교는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실체는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되어서 추도식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도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혀야만 앞으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알기로 일본 대사관에서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보고는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 당국 본부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과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이 협상을 해 왔고 이런 사달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체 자료와 회의했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지난 11월 22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지난 2022년 8·15 때 소위 말해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 오보를 처음 접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상현 위원 오보를 처음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배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거기에서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그것을 알고 일본 외무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추도사에 대한 내용을 언제 알았고 추도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교도통신의 11월 22일자 보도를 보고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그것을…… 이쿠이나 아키코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정보를 그것을 믿었는지, 그 오보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 단계에서 추도사의 내용이 언제 알려졌고 추도사의 내용을 접하고 또 우리 대사관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하고 외무성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율 기능, 협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도통신 오보부터 시작해서 대사관과 외무성 간의 서로 통신·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내 주십사, 이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알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지요?

○ **김준형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형 위원** 너무 석연치가 않아요. 계속 아까 인사말도 지금 저도 겨우,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지금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일본은 24일이라고 확정을 하고 한국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취소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기자단 백브리핑을 취소한 경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추도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18일 날 자료를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도 25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관하고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역시 요구를 했는데 4개 자료 어느 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당연한 자료까지 주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외교부장관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추도사 전문이 오늘 아침에 갔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는 바로 보내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그동안의 협의 경위, 교섭 경위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그러면 협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후덕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미리 제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사도광산 추도사의 원문 제출을 외교부에서 언제 받아 줬어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추도사 최종안은 행사 이를 전인가, 그사이에 내용이야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최종안이라고 하면서 또 그 결론 낸 것을 알려 준 것입니다.

○ **윤후덕 위원**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입수를 한 거예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 **윤후덕 위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수를 했습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몇 시까지는 제가 말씀을, 기억을……

○ **윤후덕 위원** 이것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입수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7월 달에 합의한 것에 미흡하기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쭉 지나면서 불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나 해명이나 이해 그리고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나 해명이나 설명이 그때그때 제시간에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언론도 밝혀 주고 또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불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들하고 협의하고 또 일 측에 통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무려 5일 동안이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돼서 이게 너무 늄장 대응을 했고 또 군복 외교를 했다, 저자세로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늄장 대응이라기보다 끝까지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늄장 대응이었으면……

○**윤후덕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측과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기자단에게. 그게 25일 오후 2시 19분이에요. 이게 외교부가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서 전화했는지 만났는지 불렀는지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 주지를 않았어요. 의원실에서도 그것을 계속 자료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확인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무려 이를 동안 국민들은 ‘이게 접촉한다는 게 뭐야?’ 의아심이 많았어요.

그러더니 장관이 어제나 들어오셔서 귀국해서야 홍석인 공공외교대사가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를 불러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 이를 동안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돼 버렸어요. 장관이 올 때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되던 날 바로, 일본에 통보한 직후에 제가 TV 인터뷰 나갈 일이 있어서 그때 상황을 했고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리고 바로 그다음날 제가 G7……

○**윤후덕 위원**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줬어요. 그것도 접촉만 했다고 그리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외교부에서 만났잖아요. 불러들인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인가 그제 이탈리아에서 G7 외교부장관들 회담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누구 누구 누구 만났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7개 장관 만났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 만났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는 회담하면 그때는 그대로 보도자료를 다 냈어요, 외교부 본부에서. 그런데 일본 외무상하고 회담을 하고는 사도광산에 대해서 우리가 불참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진짜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내지를 않으니까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PG를 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관이 외교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틀막,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제가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상황 관리를 제때제때 못 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윤후덕 위원 아니요. 다른 장관들은 바로바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게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이 참사는 조태열 장관이 늑장 대응을 하면서 외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늑장 대응해서 그랬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건 제 책임 하였던 것이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제가……

○윤후덕 위원 아니, 늦었다고…… 서두부터 잘못했다고 자기가 시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시인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저는 길게 하자는 않겠습니다.

우선 남북 사이에 풍선이 왔다 갔다 한 것하고 또 광산에서 있었던 행사가 좀 아쉬운 점은 있었고 일본의 태도는 혹시 했더니 역시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지난 정권에서 사드 비밀을 중국에 유출하고 또 시민단체에도 유출하고 저는 사실 언론에서 이것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지만 할 말씀 좀 부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드 3불 정책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의 담당했던 고위 당국자가 합의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약속한 바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간주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진행되고 일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중국한테 뭐라고 할까요 공유했다는 것이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했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통일부장관님, 지금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남쪽에서도 과거 정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금 통일부의 입장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국가론에 대한, 북쪽에서 자꾸 적대국가로 통일도 다 삭제하고 길도 다 폭파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는 헌법 4조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휴전선 이북의 철도 그리고 도로를 폭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요한 위원 외교부장관님, 세금 폭탄,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를 외교적인 대안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자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을 때 미국의 제일 아쉬운 점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를 건조하는데 특히 군함, 미국이 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랄까 트럼프가 첫 부탁이라고 할까 대한민국에서 배를 만드는 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봄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일대일로 세금 폭탄 이런 것 맞을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통화 과정에서 조선업이 거론이 된 것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굉장히 각인된 이슈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파이를 키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리스크 요인은 줄여 가는 노력을 국내적으로 대비하고 또 대미 협의 과정에서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이번 광산 행사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일본을 대할 때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뜻이 있고 일본이 또 감당해야 될 뜻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일본이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7월 달에 우리가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허용을 했을 때 우리가 내건 조건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써라 그리고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 설치해라 그리고 진심 어린 추도를 해 달라, 세 가지였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상현 위원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100% 되지도 않았고 이번에 추도사 내용은 저희들 기대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강제노역의 전시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거기를 갔을 때 강제노역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강제노역보다는 가혹한 노동 환경에 더 초점이 맞춰 있는 전시인 것으로……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가혹한 환경, 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했다 이런 것만 있지 강제노역이라는 것은, 강제성,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심 어린 추도를 했는데 지난 11월 24일 이쿠이나 아키코가 한 내용, 내빈 인사말을 보면 뭐라고 돼 있나? ‘한반도에서 온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이게 추도사입니까? 이게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참 결정을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진심 어린 추도사면, 이게 무슨 역사 해설 설명서를 던지는 겁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하면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요. 결국은 박진 장관께서 계속해 왔던,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 달라. 그런데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 버렸다, 물컵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난 2015년도 하시마 광산 유네스코 등재할 때 똑같은 식으로 두 번 연거푸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때도 잘 아시지요? 하시마 광산 등재할 때 우리가 뭘 요구했습니까? 강제노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려 달라고 그랬지요.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강제동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마 광산에서 한 1000㎢ 떨어진 도쿄 신주쿠에다가 산업유산정보센터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윤상현 위원** 거기에 강제노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어떤 문구나 표현이 있습니까? 보고받아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시물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문구는 합의돼서 세계유산위원회 수석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석대표의 발언만 있지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가 보면 강제노역이라는 말 없습니다. 가혹한 차별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미화를 시켜 놨어요. 축소하고 왜곡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 두 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번을 당합니까? 당한 이유는 뭐니까?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하고 지난번에도 당했다. 연차로 당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이 있으면 이쿠이나 아키코가, 정무관이 세 명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있었다 하면 설사 그게 오보라고 하더라도 즉각 즉각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추도사를 딱 받아 보면 추도사 내용이 ‘너희들이 진심 어린 추모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조율을 하고 아니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든지 뭔가 외교 실무 현장에서 돌파를 해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맨날 이시바 시게루하고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하고 만나서 역사가 어떻고 뭐 하더라도 진짜 실무선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 자꾸 책임 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 통감하시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장관님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공사 하나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끝냅니까? 저 같으면요 박철희 대사 소환을 하든지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거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지요.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 측의 조치하고는 엄청난 인식의 갭이 있다는 거.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와야 외무대신을 만나서 강하게 유감 표명을……

○**윤상현 위원** 유감 표명을 했다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거기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제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장관 등의 특사단을 접견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배석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던데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배석을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갔고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별도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 자리에서 살상무기 지원이 논의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반적인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또 북한 파병군의 동향 등……

○**김영배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보 공유가 있었고요.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쪽에서 어떤 희망 사항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슨……

○**김영배 위원** 희망 사항이 있었습니까? 희망 사항은 그러니까 155mm 포탄 구매 허가를 요청한 듯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맞다 이 말씀이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표명을 했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아까 그쪽의 희망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희망 사항이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방공과 관련된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 차례 한국에 요청할 거라는 이야기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는데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교부가 빠진 상태에서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접견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있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귀국하기 전에 먼저 떠났고요. 저는 이태리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외통위에 비공개로 관련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외통위가 아니라 일단 국방부가 주무 장관이여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하나만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무기를 수출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평화, 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요.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방위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월츠 의원이 매우 화를 내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기 지원 논의하시면 안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참고로 우리 대응 방안은……

○**김영배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요 이 문제의 본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그런 상황을 몰랐지 않지 않습니까? 군함도 때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일본이 할 것이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워라 그리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든 안 하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면 일단 사도광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 줘라.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하는 게 더 먼저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청산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고 들어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통령께 이 관련해서 최근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적도 있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9일 날 일본 언론에는 추도식을 11월 24일 니가타현에서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이걸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알려 왔습니다만 확정적인 날짜를 통보해 온 게 11월 22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그동안 어떤 협상안을 제시했었던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놀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협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 그것도 하루를 앞두고 불참하게 된 이유를 합의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의 합의 요구를 했길래 합의 수준에 미달하느냐. 그걸 보려면 10월 29일 날 일본 언론에서 11월 24일 한다는 보도가 난 이후로 한 달간 어떤 내용을 외교부에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합의 수준…… 7월 달에 일본 대표가 발표한 발언 내용, 전시물에 전시된 내용 그것이 합의 수준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합의한 특사단이 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현재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실제로는 이 살상무기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는 제가 여기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외교부장관인데도? 모른다 그 말이군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른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이재명 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이재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다니까,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이 너무 긴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이재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을 길게 자꾸 뱅뱅 돌리십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말할 수 없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명 위원 두 번째로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상태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도 수준을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 이재명 위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경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 하는 바람에 한미 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나서 가지고 무기 지원 논의를 합니까?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의 양심을 가지고.

○ 외교부장관 조태열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 이재명 위원 질문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이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도 휴전 협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미 관계가 개선될 기미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위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매달려 가지고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그런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합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반성하세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안보를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위원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일에 최대한 비켜 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 이재명 위원 동네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것 바보짓이에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진정한 외교관 아닙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이재명 위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성을 촉구합니다.

통일부장관 잠깐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당할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미 통일 독트린에 의해서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제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제의만 하면 됩니까? 대북방송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뼈라 보내는 것도 소위 온갖 지저분한 내용의 뼈라를 보내는 걸 방지하면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 정부가.....

○**이재명 위원** 지금부터라도 뼈라 보내는 거 좀 중단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방송 해 가지고 그 대응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중단시킬 용의 없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재명 위원** 법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가 더 먼저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에 누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이 한 3개월 동안 장관님을 괴롭혀 드렸잖아요. 그런데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이건 성과다,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 군함도하고 비교해도 그때는 외상이었지만 저번에는 현찰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난번에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수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만 모르신 것 같아요. 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한 번도, 이런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처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놀라셔서 항일 열사가 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초지일관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너무 결기가.....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요. 이 협상은 처음부터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협상인 것 같다. 전문가도 이상한 데서 오고, 물론 최고의 협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군함도 때도 일본은 그다음 날 바로 바꿨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지금도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외교부장관님만 일본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놀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합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김준형 위원**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러셨지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수준이..... 저게 1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보시면 이미 인정을, 보시면 18시간 동안 바뀌었어요. 금요일 날 22일 9시에 일본이 수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추도사 포함해 가지고 일본이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을 이미 다 알고 했는데 18시간 동안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보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이지 우리가 참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18시간 전에는 못 받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내용이 그렇게까지 할지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요.

○**김준형 위원** 그것을 18시간 전까지도 파악을 못 한다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왜냐하면 최종안을,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는 오갔지만……

○**김준형 위원** 그것을 받아 낼 능력도 없습니까? 추도식이 결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그 추도사를 18시간 전까지 받아 낼 능력도 없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능력이라는 게 상대방이 내놔야 되는 것이지……

○**김준형 위원** 상대방이…… 24일 날 하는데 국가 간의 약속인데 18시간 전까지 뭘 얘기할지 몰랐다가 18시간 전에 알고 나서 취소하는 게, 그것 받아 낼 능력도 없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준형 위원**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는 여기에서 결정 주체가 장관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의심이 듭니다. 그때도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고 ‘한 번도 간섭한 것 없이 외교부가 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시지요, 그렇게 발표하신 것?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게 사실이니까요.

○**김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고요? 보고하셨다면서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결정해서 결정한 것을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

○**김준형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열사가 되신 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갑자기 열사가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면 좀 큰 꼬리이기는 한데 꼬리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이 외교부장관이 아닐까. 지금 결기가 마치 사퇴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장관님이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에 희생이 되실 것 같아서 오히려 외교부에 관계되고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혹함을 느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사퇴 안 하십니까?

제 질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저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네.

○**이재정 위원** 위원장님, 방금과 같은 방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석이 아닙니다. 국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형 위원** NSC에서도 얘기가 됐고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 발언에 대해서,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보고하면서 추도식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추도식 하고 안 하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함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챙겼다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신다는 말에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지만 여전히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매우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언제 아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뭐를 말씀입니까?

○이재정 위원 지금 뭐 묻고 있겠어요? 사도광산.

○외교부장관 조태열 협의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대응이 없었고요.

○이재정 위원 날짜, 그날 개최된다는 것은 언제 아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24일요?

○이재정 위원 예.

○외교부장관 조태열 24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10월 말에 처음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11월 20일까지 계속 공식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고 있었는데 만다.

국회가 사후적 통제하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만약 일찍 보고를 하셨고,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것 대외비로 해 달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당 간사님이나 여당 위원장님, 여당 위원님들께는 관련 내용 공유하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차관이 수시로 여야 위원님들께 전화드리고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재정 위원 아니요, 관련 날짜에 대해서. 개최된다, 가안이라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최되는 날짜는 조기 확정이라는 저희 목표가 있었는데 9월 달에도 어렵다 그리고 10월에 충선이 있으니 그러면……

○이재정 위원 24일 개최 사실, 개최 가능성에 있다는 것 알고 난 뒤에 여당 위원님께는 보고드렸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직접 보고드린 적은 없고……

○이재정 위원 다른 경로로 보고를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부 위원님들께는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게는 보고하지 않으신 거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재정 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은 확정된 이후에, 일본과의 비밀이라는 게 결국은 차별적이네요. 여당 위원에게는 보고해도 되고, 일본 간의 신의는

그러면 야당 위원에게만 비밀로 하면 지켜지는 그런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민감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이재정 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야당 위원에게는 보고하면 안 된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입니다. 협상을 안 했더라면 이런 참사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를 내세우셨는데 그 주체로서…… 사실은 이것 사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또 이 얘기를 질의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예견한 질의만 해도 위원님 1인당 네다섯 번 이상은 될 겁니다, 본 상임위장에서도. 그런데 빤히 보이는 길로 끝끝내 가셨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어떠한 책임이라는 것은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판단해서 하시겠지요.

○이재정 위원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좋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직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또 위증을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감 때 직접 방문했던 사도광산 사진을 찍어와서 이후 상임위 과정에서 빼겨거리는 손잡이 그리고 정말 곰팡이 핀 듯한 벽, 도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못 박은 자국이 그대로 균열된 채로 보이는 그 공간에, 이 말 아니면 표현이 안 됩니다. 처박아 둔 것 같은 그런 전시물을 보여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는 그 말씀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무성이 뭐 그랬던……

○이재정 위원 이게 유산이라서 손을 댈 수 없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본 문화재보호법 그것 아닙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일본 문화재보호법 보면요, 소유자가 수리할 수 있고 소유자가 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부적당하다면 문화청장관이 관리할 수도 있음이라고 일본 문화재보호법 34조의2, 34조의3 그리고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대해서 32조의2와 그리고 같은 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조사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익을 반영할 협상에 나아갈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와 태도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답변은 일본 외무성 담당국에서……

○이재정 위원 그 말을 신뢰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면 신뢰하고 협의를 하지 신뢰를 안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재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일본을 하나도 못 믿어서 법을 찾아봤겠습니까? 신뢰한다는 게 ‘저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일본의 현행 법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 예의가 아니지’ 하고 덮는 게 신뢰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중요한 정보를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일본 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본 관계로 심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이나 불법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소한의 면피성 아니면 회피성 대응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는 지극히 부정적이고 또 이 정서는 계기에 따라서는 크게 발화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러한 어려운内外적 여건 속에서 과거 문제도 다루고 또 현재와 미래의 협력도 열어 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국내 정치적인 기량도 보여줘야 되고 또 외교 교섭의 기량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봐 온 것은 이와는 거리가 멽니다. 여론을 모으고 국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도 어려울 터인데 정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미화해서,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런 방식이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에 추진해 온 정부의 대일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외교부나 장관의 문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전체의 대일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대일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여론도 더 수렴하고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도 더 끌어내는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만 한일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갈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그 후에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요?

○**위성락 위원** 파병 이후에 그 정보가 나오고 또 관련된 군사협력적으로 어떻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보 수집을 하고 관련국과 협의를 해 왔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것은 특별한 것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위성락 위원** 사실 처음에는 정부가 정보도 아주 급히 성급하게 공개도 하고 또 살상 무기를 줄 수도 있다, 참관단을 보내겠다 등 상당히 강성 과잉 대응을 할 것 같은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대응이 실제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장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러북이 군사협력을 하는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성락 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기본적인 일차적인 대응은 초동 단계에서, 대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강하게 갈 것 같더니 갑자기 주춤해서 일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사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신 것은 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은 거기서 나오는 발표문입니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함께 싸운다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스테이트먼트(statement)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함께 싸운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일관성이 안 보이고요.

이번에도 파병 정보를 마구 흘리거나 강성 대응을 공연할 때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일관성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은 일관성인가, 바이든 따라가다가 트럼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초기에 하고 나머지 어떤 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하는 우리 나름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나름의 정책적 판단의 기준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다 감안해서 또 새로이 들어서는 신행정부 동향, 나토 국가들의 동향 다 봐 가면서 긴밀히 협의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월츠 국가보좌관 내정자와 설리번 보좌관이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원팀으로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다 신중히 고려될 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우선 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추도사가 또 일본 측의 참석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또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굉

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일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부도수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곁으로만 지쳤지요. 아마 우리가 불참 결정한 데 대해서 일본의 반응이 유감 표명이 아닌 ‘잔넨’이라고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조치가 전격적이었고 자기들도 의외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홍기원 위원** 장관님은 어제 도어스테핑 인터뷰에서 표현의 문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합의된 문안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때 합의된 문안 중에 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안은 어떤 게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일본의 당시 정책에 근거해서 온……

○**홍기원 위원** 아니요, 그때 합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명심하고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이러이러한 관 알선……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강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7월 달에 합의한 그 내용이 우리 국민의 기대, 국민의 요구하고는 많이 못 미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잘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 잘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약속을 대단하게 어긴 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외교적 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누차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된 거는 2015년 세계산업유산 그리고 군함도 관련 합의 때보다 많이 못 미친 거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혹시 아이카와 사도광산 유적지 가 보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가 보지 못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 간부 중에 가 보신 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문화공공외교국장……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공공문화외교국과 그다음에 주일대사관 쪽, 니가타 총영사관……

○**홍기원 위원** 그래요? 이번에 추도식 관련 협의할 때 본부에서 누가 일본에 가서 협상하고 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공공문화외교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누가 가서 했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공공문화외교국장이 갔습니다.

○**홍기원 위원** 차관님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가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 추도식을 당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하면서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했고 이게 잘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차관도 한 번도 일본에 안 가고 일본 외무성 차관이나 누구하고 대화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한 정도만 해도 한국에서는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외교부가 원팀이 되어서 사실 아시겠지만 공공문화외교국, 아태국.....

○홍기원 위원 외교 협상이라는 게요 그걸 누가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 또 중요성, 강도도 다른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협상은 저희가.....

○홍기원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일 밤 9시 11분에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차관급이 참석할 거라고 문자 발송하고 23일 3시 16분에 불참을 발표했는데 23일 날 이것 관련해서 장관님 주재 긴급회의 있었지요? 거기 차관님도 참석하셨어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23일 저녁에 제가.....

○홍기원 위원 23일 날 추도식 불참을 발표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차관님 참석하셨냐고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중요한 회의에는 대부분 다 참석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질문하잖아요. 토요일 날 이걸 결정하는 회의에.....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예, 참석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현안보고 하시면서 추도식 관련해서 수개월 간 협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었는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되어 버린, 일본 측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체위 현안질의 과정에서 장관은 발언을 통해서 문체부는 그 어떤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오늘 현안보고 하시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 부처라고 하는 게 행안부로부터 받은 유가족 관련한 명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 내에서도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강인선 차관이 아마 책임을 지시고 뭔가를 주도하셨던 것 같은데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관께서 바쁘고 하시겠지만.....

○외교부장관 조태열 문화행사가 아니니까 문체부랑 협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한정애 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세계유산을 등재할 때 어떤 어떤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또 다가오는 근대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일본 측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건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유가족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어떤 추도식을 기대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의 정상 합의에 따라서 2008년에—2008년 1월 이지요—진행된 유텐지 추도식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기대한 추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텐지 추도식과 사도광산 추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는 유텐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었고요 사도광산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실행위원회였습니다.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9월 12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당시 참석자는 유텐지의 경우에는 외무성 부대신, 차관이었습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이었지요.

비용 부담은 유가족의 일본과 관련된 일체 경비, 유텐지 추도식 관련한 경비,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우리가 부담했지요.

강제동원 관련한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기묘묘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금도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도식 관련한 유가족 항공편이라든지 현지 경비 등을 모두, 이것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추도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표는 발언에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추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말씀이었어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 탄광의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고.

아마 장관께서도 외교부 공직자로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2008년 초에 있었던 저 추도식의 내용을 아마 외교부 관계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 이와 비슷하게라도 하고자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문구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철희 주일대사, 평소에 일한 관계를 외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황당한 주장을했던 박철희 주일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다듬은 일본통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심기 보좌하기에만 바쁜 이 대사가 과연 현지에서 협상은 제대로 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과 담당 차관인 장인선 제2

차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실무 부서인 공공문화외교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하고 최일선에서 협상을 담당했던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결정한 게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안 지켰기 때문에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 관련한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일본이 당사국이 해야 되는 이행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올해 24년 바로 내일 모례입니다, 12월 1일까지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일본의 후속 조치 경과는 내년에 다시 제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24년 12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해당 당사국들과 의논하라고, 협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일본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일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12월 1일이면 내일 모례예요. 아직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은 일본이 지금 이행경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지를 않았고, 그 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2월 초까지……

○**한정애 위원** 12월 1일이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전까지 저희들한테 공개되면……

○**한정애 위원** 세계유산위원회의 이행 결정문에 보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 한일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할 것은 해야 되는데 축하할 것은 축하하더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거 역사를 부정하면서 맞이하는 한일수교 60주년 축하가 일본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축하하겠는가,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보좌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신중하게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텐지 추도식은 일본의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경비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담해서 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과 또 경비를 왜 우리가 다 부담했느

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국외추도순례 사업 같은 것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 사례도 참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재강 위원 예. 어저께 소위에서 김건 간사님도 참석하셨지만 통일부차관의 문제 발언이 있어서 오늘 제가 문제를 삼으려 했는데 와 보니까 통일부차관이 불참했습니다. 회의가 하루 이틀 전에 잡힌 것도 아니고, 불참 사유에 대해서 공지도 하지 않고 오늘 불참을 했는데 도대체 이건 국회를 통일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통일부차관의 불참 사유와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위원장을 대행하시는 김건 위원장께서는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차관 참석 요청이 원래 없었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이 지금 본격화됐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지금 최근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 40명이 투입돼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 또 500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일부 동부 지역에도 배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보도 내용은 다 일일이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대부분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보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1만 명 정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가 사실 확인되는 건데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것도 역시 미확인된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다 보도 내용입니다.

○이용선 위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첨단 군사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확인된 바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전반적인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살상무기들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포탄도 포탄입니다만 여러 가지 미사일 등등 이런 살상무기 등에 있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부 러시아의 미사일이 북한에 지원됐다는 그런 정보는 최근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제 특사단이 와서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아마 G7 외교장관회담 때문에 참석을 아까 못 하셨다고 들었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국장이 배석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 우리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러 군사협력 또 전황의 진전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한 두 세 차례 이야기했고 또한 안보실장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용선 위원 뭔가 같은 취지지요. 그리 했고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전황을 어쨌든 유지하거나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 게 무기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요청을 끊임없이 해 왔고 드디어 특사단이 방문을 했는데 아까 장관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다 했는데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는 지원이 또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구매 방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특히 방위산업 사업체들하고 면담도 정부가 일정하게 보이지 않게 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해서 접촉도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걸로, 소위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듯한 보도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 보도 내용이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 참고돼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용선 위원 어떻든 실효적인 차원의 협력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는 어제 회담 이후의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는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장했던 대통령과 안보 책임자들의 발언 때문에, 주장 때문에 정책과 기조를 바꾸는 데 머뭇거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그 기조는 변동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도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지요,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면 24시간 새로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이미 안보보좌관 내정자나 또 어제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임명됐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취임 전에도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본적인 방향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리번 보좌관과 월츠 보좌관 내정자가 만나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데에 따른 합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대외적인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러우 전쟁의 상황이 이제는 휴전을 앞두고 상호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전쟁 휴전 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한국전쟁 같은 휴전안들이 급부상되고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말에 구속돼서 러우 전쟁에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이 정부의 기조는 빨리 재수정돼야 된다고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께서도 입장과 태도를 빨리 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정부 측하고 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또 NSC 멤버이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반 상황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행사가 아까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도식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과보고 대회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의 시각을 제가……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보시고 그 행사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위원** 결국 명확한 답변을 또 안 하시네요.

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까 일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이 좀 놀랍습니다.

이 군함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예견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뭐라고 대응을 했습니까? ‘성심성의껏 대응해 왔는데 유감스럽다’,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떠들고 있어요. 합의 부실에 근거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비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빌미들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참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하신 결정이라고 보는데 불참에도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불참 통보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니까? 그동안 정부의 대일외교 행보를 보면 또 유야무야 넘어갈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행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참 통보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이유. 구체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일측의 입장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행사의 형식 때문에 입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추도사 내용에 강제동원의 성격에 관한 표현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전시 중 일본의 노동자 정책에 기반해서 온 한반도 노동자……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

○**권칠승 위원** 이 부분을 가장 결정적으로 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칠승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본 호국영령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을 두 번 육보이는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불참 통보를 했는데 행사장 내에 한국 정부 인사들의 빈 의자를 치우지 않았다.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치워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불참을 할 테니 그 빈 의자들……

○**외교부장관 조태열** 실무진이 요청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불참 통보가 정확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고 불참 통보를 받았는데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게 정확한 팩트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치우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권칠승 위원**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곳에서 별도의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의자를 치우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외교…… 우리나라 자체를 저는 일본이 능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하시고 다음,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니까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저는 미북·북미 관계 쪽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사도광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면서 꼭 남북관계 보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성실히 안 지킨 것은 북한인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지 않았느냐’, ‘일본 그런 거 몰랐느냐’, 심지어는 ‘일본은 대충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은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얘기냐. 일차적으로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줘야 되고 책임 문제는 장관님이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방금 하신 권칠승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고 어차피 마땅한 묘안이 없다면,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선전전, 이걸 국제사회 이슈화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지금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아까 다음부터 잘할 수 있게 좀 하자 이런 건데 결국은 일본 태도가 변해야 잘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뜨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러브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미인지 미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북미회담, 정상회담이 열릴 것처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외교부장관께 드릴지 정확…… 두 분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처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 한 것을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의 리더십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이 미군 유해 송환하고 구속·구금 중이었던 미국인 석방해 주고 영변의 냉각탑 폭파하고 장거리미사일 모라토리엄까지 이런 엄청난 것들을 내놨지요, 카드로. 그러면 그 대가로 미국한테 받은 게 뭐냐? 없는 거지요, 사실은. 트럼프가 당시에 줬던, 북한에 줬던 뭐라 그럴까요 상응하는 대가는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구두로 뒤에 약속했던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었지요, 그것도 우리 정부랑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제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노딜이라는 결과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첫째, 둘째에 해당하는 결과로 봤을 때 북한의 생각을 제가 읽어 보면 이제는 러시아라는 큰 뒷배도 있고 전쟁에 참여까지 하고 있고 이제는 전에 했던 무슨 일부 영변 관련 내놓고 제재 완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무엇을 줄지를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중단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측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미동맹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고 우리 국민 안전 걸려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합동군사연습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나간다거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카드로 쓴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 과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언론을 통해서 나오든—우리 정부도 분명히 한미동맹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과 우리의 이해와 관련된,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 관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대외 메시지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 전이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방적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80년대에 교차승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중국·소련이 국교를 하면 이제 미국·일본이 국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지금 우리는 중국·러시아하고 수교를 했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교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개괄적인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신정부 출범 전에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차승인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라는 큰 틀 속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가 하나의 중요한 엘리먼트(element)로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 있었고 또 그런 틀 속에서 하다가 좌초되기는 했지만 그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큰 틀 속에서, 북핵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승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런 큰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정부 전체에서 구체화돼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광균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며칠 전에 네오콘의 핵심인 ISW 전쟁연구소가 쿠르스크도 운명이 다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온 특사단이……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는 한국의 돈과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젖은 낙엽, 망명정부의 지폐를 붙잡고 이게 돈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두 달 뒤에 그 특사단의 운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전쟁에 물론 북한의 파병과 한국군의 참전이 관련이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파병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발 가짜 뉴스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문제는 정말로 다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위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돈과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이 3차 대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슈는 아니고요. 이미 러시아의 방공미사일이 북한에 제공됐다는 정보도 확인이 돼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안보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까?

○**이재강 위원** 전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발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어제 차관이 대북 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전신고제의 경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험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전단 살포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전신고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현재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은 현재의 판결문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판결문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현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살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살포를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전신고제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가 금지했다는 어제 차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차관님이 어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 '전단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접경지역 주민에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라도 이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2월에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차관의 발언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판결을 보게 되면 재판관 네 사람이 사전신고에 대해서 그러한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관의 발언은 사전신고제의 경우 금지 통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정말로 만약에 차관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이 북한 전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지난 몇 개월간 장관님 가장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늘은 정말 착잡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통감하시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아까 일본이 추도식 상황에 진정성이 없었던 것에 사실 예상치 못하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결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는 우리 역사에 기록돼 있는데 어떻게 놀랍니까? 놀라지 않았고요. 아마 우리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도 이런 일에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놀란 거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현안보고 하신 걸 듣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 특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로 들었던 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등 한일 양국 간 중요한 협력 과제가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사안이 최소화돼야 되고 이미 외교장관 약식회담에서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아마 65년 한일협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65년 이전의 한일 국교는 왜 비정상적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왜 비정상적이었냐고요?

○**차지호 위원** 예, 그전에는 왜 비정상적이었습니까, 65년 이전에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식민 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지요.

○**차지호 위원** 그렇지요. 나라를 빼앗아 가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강제동원 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65년 한일협약 이후 한일 국교는 왜 충분히 정상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뭐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한일관계만 있습니까? 영·불, 독·불 사이에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호 위원** 한일협약 이후에 충분히 한일 국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들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한일 양국 모두 안보와 경제에 치우친 정치적 타결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돌아가신 조선인분들, 일본 표현에 따르면 조선인 살상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나 배상이나 진상규명이 외면됐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도 회피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핵·미사일 위협 얘기하듯이 안보와 경제에 치우쳐서 정치적 타결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쓰라립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게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일본 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을 죽인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다시 그때처럼 안보와 경제에 치우친 정치적 타결을 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서 6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광산에서 죽어 간 분들을 이렇게 다시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 이 강제동원으로 인해서 좁은 간도 안에서 죽어 가신 그 많은 분들, 이분들을 기억하고 추도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유로, 국교 정상화를 이유로, 60주년 이걸 기념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흘린 그 많은 피와 고통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게 어찌 지금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한 겁니까. 예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돌아가신 그분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식민과 국가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그걸 지정하는 것은 우리만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데, 저는 아까 말실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사도광산의 추모 문제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 밀릴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과제를 언급하는……

○**차지호 위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주노동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제노동과 쟁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은 지금 추도식에서, 외교부 자체 추도식이나 아니면 유족들이 불참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기억하고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외교부장관님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기념하는 것보다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사도광산의 강제노역으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을 죽였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과거는 과거사대로, 미래는 미래사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무엇에 우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를 함께, 그래서 투 트랙 어프로치를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취해 왔던 것이고 과거사……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미래사, 미래를 연구하는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연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외교부의 태도가 아니면 정책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는 것보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산적한 과제들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그것 때문에 과거를 잊자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차지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추도식에서 불거진 문제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 가게 하기 위해 파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렵게 일구어낸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요.

○**차지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양쪽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해야 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차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강제노동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일본의 외교적 코멘트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지금까지 순수 민간단체가 했던 그 추도식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추도식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 국가로서 지켜야 될 국격과 품위를 자기들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결과도 보고하고 우리 의견을 또 유네스코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런 강력한 항의 의사가 조금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에 그 부분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가 같이하고요.

유네스코 측에는 어제 저희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이 유네스코 대사와 함께 유네스코 관계자를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한 경과를 설명해 주고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액션을 취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취임을 하면서 일본이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사과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의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내에서의 지지율이나 당내 기반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 정신을 몰각하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 이게 러우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침략 전쟁, 국제질서를 위반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침략 전쟁인데 그 전쟁이 남의 일입니까, 혹은 남의 나라의 일입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오늘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몇 번 밝혔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이 이미 파병을 했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통해 가지고 밀착하고 있고 중요한 군사기술까지 서로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다 이렇게 면산 보듯이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준당사국의 하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기현 위원** 다만 어떤 경우에 이것이 과도한 형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거의 명확하거나 아주 위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할 때는 과단성 있는 결단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용과 타이밍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3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김준형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세 분께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더…… 윤후덕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김준형 위원** 원래 저부터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포함돼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윤후덕 위원** 먼저 하세요.

○**김준형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후덕 위원** 먼저 하세요.

○**김준형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추모식에 마지막에 불참한 건 저도 아쉽지만 불참한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직을 거시겠다는 결기도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결기가 왜 7월 합의, 우리가 훨씬 더 유리했을 때 안 나왔을까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아마 그렇게 했었더라면 결과는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그 변화가 오히려 용산의 꼬리자르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계속 가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외교부가 이걸 주도해 가지고 이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보면 이번에……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김영재 팀장이 사도광산도 안 가고, 그런데 장관님이 협상의 귀재라서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이번 사태의 담당자인 공공문화외교국장도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담당 국장이니까 일을 담당하게……

○**김준형 위원** 보시면 지금 이분은 일본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 유럽 전문가이시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유네스코 담당 국장입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래서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외교부장관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결기가 향후에도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개입 해야 된다는 말 안 했다고 부정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군사적 개입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김준형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국정원하고 국방부, 지금 군인 5명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난번에 브리핑하러 갔지요.

○**김준형 위원** 인지하셨습니까, 우크라이나 가신 것은?

○**외교부장관 조태열** NATO에 브리핑하러 간 김에 우크라이나에 들렸지요.

○**김준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차관 나왔을 때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미동맹이거나 유엔 PKO가 아닌 경우에 한 명의 군인이라도 간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럴 때 모니터링 한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유엔과 다국적군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만 참관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여행금지구역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근에 단계를 올린 걸로 압니다.

○**김준형 위원** 금지구역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쿠르스크 지역……

○**김준형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형 위원**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셔도 외교부장관이 형식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형식 논리는 그렇겠지만 과연 그게 실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일까요?

○**김준형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파병인데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금지구역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개입에 참여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토박물관도 해석하면 강제동원이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번 추도사 부분은 강제동원 없다고 한 그 변경된 자세가 저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향토박물관은 이미 강제동원이라는 걸 표시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읽어 보면, 해석하면 강제동원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도사에는 왜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정신이 추도사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 느끼시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행동 양식이나 외교부가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떤 것에 대해서?

○**윤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만나서 유감표명을 했다 했는데 외교부는 유감표명 안 했다라고 그리고 또 오늘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강도를 보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초치했다 하면 적어도 공개적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비공개적으로 하고. 외교부는 장관님하고 다르게 왜 저자세로 나갈까?

한일관계에 있어서 물꼬를 트고 이니셔티브를 가져온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오코노키 마사오나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이나 전부 다 얘기하는 게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확고하게 주도적으로 당차게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것.

위원님들이 자꾸 ‘저자세 외교, 저자세 외교’ 하는데 저자세 외교라는 말씀을 안 들을 정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한일관계의 공든 탑 이것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계기로 해서 차후에도 이번에 외무장관 만나서 말씀하신 것같이 뭔가 또 새로운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외교 실정,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외교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라든지 또 외교부나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하고 외무성하고 협상할 때도 사전 조율 기능 같은 걸 강화시키고 또 이런 현안 문제가 발견됐을 때 탁탁탁 바로 실무협의를 할 수 있게끔 소통과 협의의 채널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이쿠이나 차관이, 정무관이 만약에—차관보급입니다만—교도통신이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것 확인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외무성 관리가 당사자한테 알아보면 금방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믿고 그렇다고 하고 그때부터 혼들렸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 강화 기능, 협의 실무 기능, 외교부의 좀 더 당찬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번에 비용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이와야 대신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서 더 소통이 잘 되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되는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각 레벨에서의 그런 소통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사도광산 추모식에 불참한 것은 저로서도 불행 중의 다행이다, 결기를 가지고 불참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장관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너무 늦게 대응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저자세구나 또 굴욕외교를 했구나 그런 여론이 거세졌어요.

그런데 이 얘기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일본 외무상하고 회담할 때 ‘이 외무성 정무관의 참배 이력 때문에 우리가 불참했다’ 이런 식으로 그 외무상이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물론 영향은 미쳤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을……

○**윤후덕 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도 외무상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나는—그러니까 장관은—이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특별히 반응을 안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반응을 안 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라고 생각을 한……

○**윤후덕 위원** 아니, 장관끼리 만나면 우리 쪽이 문제로 제기한 부분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협상하고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저희 유감을 표명했고 경청하는 자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는 이게 한국 측의 불참의 해프닝이다 이런식의 얘기가 돼요. 그쪽 일본 언론도 그렇게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보 때문에 불참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외무상에게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G7 회담을 했을 때 제대로 상세히 보도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일본 측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함부로,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후덕 위원** 아니요. 다른 나라들하고 한 것은 그때그때 다 외교를 하면서 하는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야 이견이 없으니까요.

○**윤후덕 위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왜 보도자료를 못 냅니까, 우리 외교부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그래서 PG로 했다니까요.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데 방점을 찍어서 서로 언론 대응을 하자라는 게 양쪽의 기본적인 양해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자 돌아가서 이것저것 미주알고주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의 외무상은 자기네 주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관이 설득하려고 한 것은 다 무산이 된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경청을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좀 말씀……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어제께 법안소위하면서 ‘현법재판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 보시렵니까?’ 하고 제가 현법재판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통일부차관님께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북전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위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말하는데 북한의 주장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한 10명 이상의 분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오물풍선 날아옵니까? 우리 쪽에서 안 뿌리니까 오물풍선 날아오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제일 먼저 전단살포를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위기와 관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리어 통일부차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북한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막지 않고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정책들을 계속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도 대북전단과 국민의 안전 위협이 북한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의 말씀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그것을 전단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단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 그것을 위원님들의……

○**이재강 위원** 아니요. 우리 전부 다 우리 소위에…… 잠시만요. 소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일부차관님을 포함해

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보십시오. 대북전단법이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요? 10명 이상의 분들이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여하튼……

○이재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들의 그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연관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관님의 그러한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아니, 그렇다면 분명히 직접 차관께서 사과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장관께 사도광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으로 해 달라라고 일본에 요청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이번 사도광산 비롯한 산업유산도 그렇고요. 이게 일본이 한국에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요.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유네스코를 통해서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근대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2015년 것도 명심하고 2024년에 했던 약속도 명심하고 이번에 또 뭐를 하겠다.

그런데 명심한다는 건 뭡니까? 명심하고 그 명심한 것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야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 차례 두 번에 있었던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을 다시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는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이번에 보여준 외교부의 결기가 추후에, 지금 일본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산업유산 등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베어 인 마인드

(bear in mind)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 공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보여야지만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따낼 때는 약속을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서 그냥 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가 된다면 추후에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저도 외교부장관님한테 사도광산 문제, 추도식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고자 합니다.

앞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이번의 추도식은 대체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장관께서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군함도 합의 때 사실 합의를 잘 이끈 장본인이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광산 합의와 관련돼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감 때 그 합의의 불철저함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명심’이라는 표현을 아까 한정애 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만 기존 합의를 마치 자동 승계하는 것 같은 이런 것에 우리 정부가 넘어간 것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그때 그 지적들을 위원들이 국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불철저함, 그것 특히 전시 관이라 하는 향토박물관의 전시 내용 자체에 보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들이 전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추도식조차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근본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지요.

그게 아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거라 이렇게 보여져서 불참 통보를 하는 아주 강한 나름 대응을, 외교적으로 보면 강한 대응을 하신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도광산 협의의 불철저함 그리고 역대 정부, 특히 일본 총리 같은 경우 기시다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 합의, 한일관계의 역사에 관한 합의는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사죄와 반성도 있지만 또 그것을 뭉개는 발언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불철저함들이 일본 당국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런 사도광산 합의의 불철저함과 문제점이 결국은 이것을 넣은 근본 원인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방금도 한정애 위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추후도, 앞으로도 그런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들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바로 잡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차관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일본에서 외무성의 이쿠이나 정무관이 사도광산 추모식에 참석할 거라고 발표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그날 저녁 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거라고.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쿠

이나 정무관. 그것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뺏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PG 같은 것들은 대부분 간단하게 냅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 열몇 시간 만에 불참을 결정했는데 저는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추도사에 강제동원을 의미하는 그런 문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불참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미 7월 달 외교부에서 발표한 문서나 또는 유네스코 관련한, 그때 사도광산 관련한 자료를 보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로도 일본이 예를 들면 내년에 추도사 할 때 강제동원 관련한 문구를 넣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내년에 잘 되도록 하겠다 노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강인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가 11월 24일 날 그리고 오늘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추도식 불참이. 국민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이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일본한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제기 안 할 것으로 얘기하셨고 그 이후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저나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관계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일본에 양보하는 그래서 일본도 양보할 것처럼 하는 식의 태도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감정에 상처를 주고 또 이번에 아마 일본 국민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이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엉뚱한 요구 하고 있다고, 자기네는 7월 달 유산 등재할 때 한 약속 그대로 지켰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국민감정이 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동의합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살상무기의 지원 문제를 논의했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해 주셨던 게

단계적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해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단계에서 고려를 하게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도 않고 전략적으로도 효용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살상무기 지원을 논의하는지……

○외교부장관 조태열 중요한 사안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국회에서 국민들 대표해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지금은 아직……

○차지호 위원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면 경제 문제에도 연관이 돼서 우리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얘기를 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안보 문제에 관한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테일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차지호 위원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좀 돌려서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 정책이 살상무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익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우리 정부의 정책이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동맹으로서 당연히 조율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다중 위기가 이제, 윤 대통령님도 글로벌 복합 다중 위기의 시대가 많이 염려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패권 질서의 변화나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고 기후나 아니면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본 위원이 좀 염려를 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국이 연계성을 더 크게 가질수록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상무기 지원하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거절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가 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직접 동의를 받거나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적어도 여론에 반대되는지를 부디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대의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외교부에서 밀실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물론입니다. 다 두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1분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이제 내년에 사도광산 추모식에 한국 사람들이 참석을, 정부에서도 가려면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부터 걱정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런데 군함도 사건 관련해서도 금년 12월에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일본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근대산업시설에 관한 경과보고서지요.

○윤후덕 위원 거기서 좀 성과가 나오?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시다시피 별로 반영이 안 돼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러면 1년 후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군함도 등재에 관한 한 역으로 갔지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12월 달에나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속조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제적인 현실이 어디 강행 규범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치러야 될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들이 해야 될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성과가 날 수 있게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
○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김영배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19인)

권칠승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 출장 위원(1인)

김석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2차관 강인선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조정기획관 송시진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유럽국장 임형태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이태우

통일부

장관 김영호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통일기획관 황승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2024. 11. 12. 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546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1)

이상 2건 11월 13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3)

11월 15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5)

11월 20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6)

이상 2건 11월 26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7)

11월 27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3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4. 11. 8. 외교부 제출)

11월 11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행정입법명 | 공포일 | 제출일 |
|------------|--------------------|--------------|--------------|
| 외교부령 제140호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 2024. 11. 6. | 2024. 11. 6. |

| 구분 | 행정입법명 | 공포일 | 제출일 |
|----------------|-----------------------------|---------------|---------------|
| 외교부훈령 제228호 |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4. 11. 14. | 2024. 11. 14. |
| 대통령령 제35011호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4. 11. 26. | 2024. 11. 26. |
| 외교부령 제141호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4. 11. 26. | 2024. 11. 26. |
| 외교부고시 제2024-7호 |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 2024. 11. 26. | 2024. 11. 26. |
| 통일부훈령 제704호 |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관한 일부개정훈령 | 2024. 11. 7. | 2024. 11. 20. |

○보고서 제출

국제교류기금 2024년도 4분기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4. 11. 22. 외교부 제출)